

전역, 사회로 나아가는 성공의 길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915호
(후평동, 춘천B&I지식산업센터)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회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리·스팩 제대군인

2025 May Vol.231

Re play

군복 벗고 예술을 품다
야전의 공병, 문화의 수호자로

Re connect

현신에 답하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모든 국민에게

Re new

휴머노이드가 온다
일자리의 미래, 변화를 준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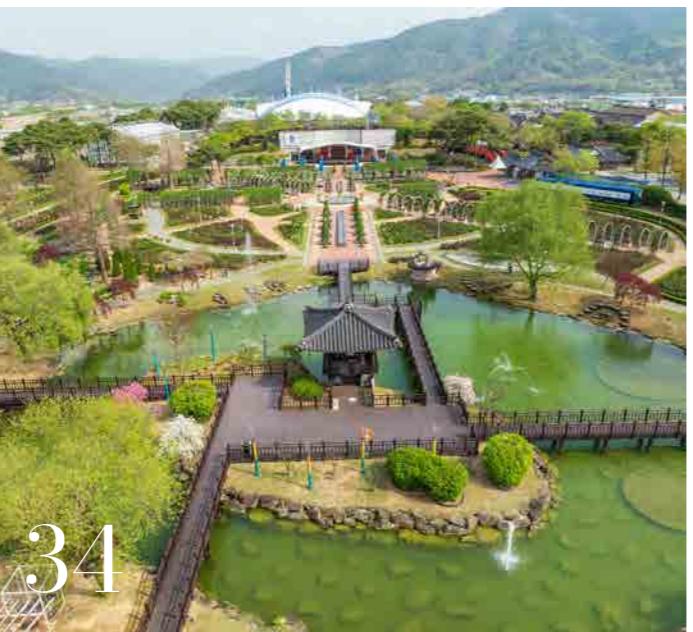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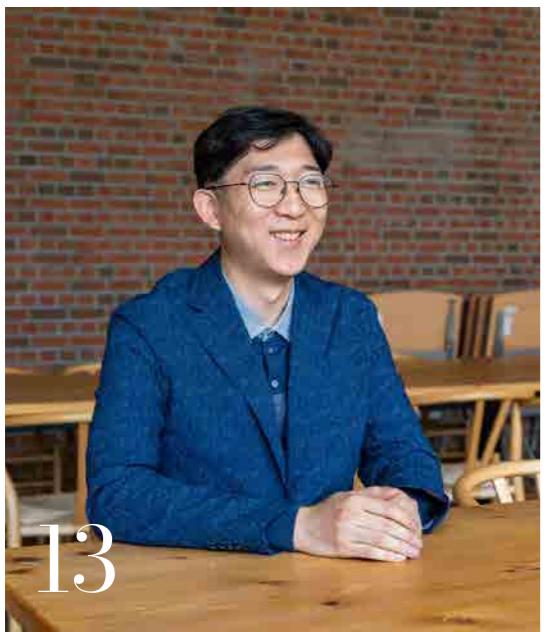
Contents

05



리스펙 제대군인

2025 May Vol.231



Re play

- 04 **리마인드**
나에게 질문은 []이다
- 06 **지금 우리는**
방위산업의 숨은 심장, 전력을 책임지는 기술력
(주)위드피에스
- 10 **인사이드 스토리**
군복 벗고 예술을 품다
한정연 예비역 육군 대위
- 14 **위대한 전환**
군인에서 또 다른 호국이가 되다
임종현 예비역 육군 중사

Re connect

- 18 **커리어 맵**
내일을 채우는 똑똑한 선택
내일채움공제
- 20 **스페셜 리스트**
헌신에 담하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모든 국민에게
- 24 **금빛 상담소**
군 경력을 활용한 성공의 열쇠, 경비지도사로 열다!
최문섭 작가
- 26 **지식 산책**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여성 독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근우회
- 28 **미디어 로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손을 내미는 이들
응급구조사

Re new

- 32 **전문가 칼럼**
휴머노이드가 온다. 일자리의 미래, 변화를 준비하라
이임복 작가
- 34 **뜻있는 여정**
흐르는 강물처럼, 피어나는 꽃처럼, 기억을 걷는 봄날
전남 곡성
- 38 **센터는 지금**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42 **독자 광장**
가족이 그리운 날, 펼치는 책 한 권

통권 231호

발행일 2025년 5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



x.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질문은 []이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

- 존 F. 케네디(제35대 미국 대통령)

한 시대를 울린 이 말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헌신했고, 또 누군가는 삶 전체를 기꺼이 바쳤습니다.

5월,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넵니다.

“나는 그들의 헌신을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제 우리는 ‘모두의 보훈’으로 함께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작은 관심과 존경의 표현들을 모아, 더 큰 울림과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마음으로 깊이 이어갑니다.



따스한 가정의 달, 우리의 작은 배려와 감사가
그분들의 시간에 온기처럼 닿기를 바랍니다.

방위산업의 숨은 심장, 전력을 책임지는 기술력

(주)위드피에스



총성이 없어도 전장은 살아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전의 심장을 뛰게 하는 힘, 그것이 전력이다.

전남 순천에 자리 잡은 (주)위드피에스는 대한민국 국군의 첨단 무기체계를 움직이는 전원공급장치 방산전문기업이다. 대포병탐지레이더, 국지방공레이더, 패트리어트 등 핵심 전력에 기술력과 신뢰를 불어넣으며, K-방산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방산 특화 기술력으로 성장한 전원공급장치 전문 기업

(주)위드피에스는 2020년, 산업용 발전기 제작 기업 (주)썬테크에서 분리되며 방산 특화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군용 발전기는 산업용과 달리 특수한 요구 조건과 제작 공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알기에 설립 초기부터 방산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전문화의 길을 걸었다. 현재 전체 제품군의 약 70%는 전력화 이전 단계에서 선행 개발되는 장비로, 기술 중심의 R&D 경쟁력은 이미 다수의 무기 체계 업체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주)위드피에스가 만드는 전원공급장치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포병의 '눈'이라 불리는 대포병탐지레이더, 방공의 중추인 국지방공레이더, 그리고 패트리어트 체계의 전원공급장치까지, 이들은 현대전의 핵심 장비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특히 패트리어트 전원공급장치는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산화의 상징이다. 시험평가를 앞둔 이 장비는 (주)위드피에스가 본격적인 전력화 무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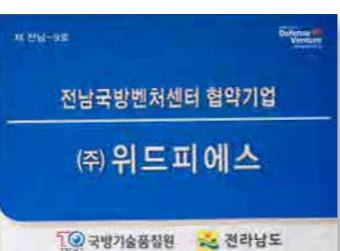
신뢰와 기술, 두 축으로 움직이는 '작전의 심장'

전원공급장치는 작전의 심장이다. 기동성과 생존성을 좌우하는 현대전에서 경량화와 고출력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술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주)위드피에스는 독자적인 설계 역량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며, 국내 특수 무기체계 대부분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전체 57명 직원 중 8명의 군 출신 직원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14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기술 혁신을 이끌며, 아낌없는 R&D 투자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개발, 정비, 유지보수, 군과의 소통까지 아우르는 신속한 A/S 체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라는 평가를 이끌어낸다. 단순 납품을 넘어 운용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주)위드피에스는 '기술 + 운영지원'이라는 이중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일류 방산기업의 꿈

(주)위드피에스는 한화애어로스페이스 같은 국내 대표 방산기업의 1차 협력사로 자리 잡았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과 ESG 경영을 도입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방 제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속에서도 까다로운 밀리터리 규격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과 생산 기술의 숙련도를 높이는 교육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전남 유일의 유연근무제 도입, 노사협의회 구성, 봉급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인재를 키운다. 기술력, 복지, 시스템을 겸비한 일류 방산기업으로의 도약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천 중인 약속이다.

(주)위드피에스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전력의 길목을 지킨다. 그들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하는 (주)위드피에스

"무기체계를 이해하는 인재, 제대군인이 중심입니다"

우리 회사는 방위산업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만큼, 민수업체와는 운영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계약 관리나 품질경영 시스템 등도 방위산업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각 군의 무기체계 운용 경험이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무기체계가 더 다양해지고 전장 개념도 빠르게 바뀔 텐데, 이를 반영하려면 군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위드피에스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품질보증기관, 유도무기 운용부대 등에서 근무한 육·해·공군 출신들이 주요 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전원공급장치뿐만 아니라 발전기와 제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전원제어장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런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인재 역시 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구용서
대표이사



주병수
생산/사업관리부장

"군에서처럼, 지금도 저는 계획부터 움직입니다"

저는 육군 방공병과에서 32년간 복무하며 방공대대 정비통제장교, 방공학교 교관, 아전부대 정비반장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23년 4월 제대하기 전, 전력화 사업 경험을 살려 전직 지원 기간 중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으로 2022년 11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산·사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군에서 익힌 '계획-준비-실시-평가' 절차가 여전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습득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순히 취업에 머무르기보다 '내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군인은 누구보다 조직의 우선순위와 책임의 무게를 잘 아는 만큼, 취업 후에도 군에서처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중간관리자로서 회사가 더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현웅
연구개발본부 연구관리팀장

"군에서 익힌 전략이, 지금 제 일의 방식입니다"

저는 해군 함정병과 장교로 복무하며 작전장교, 참모, 사업전략 업무 등을 7년간 수행했고,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2024년 6월 전역 후 고향에 정착하려 했지만, 사회 복귀가 막막한 시점에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의 상담과 기업 연계를 통해 10월 (주)위드피에스에 입사했고, 현재는 연구개발본부 연구관리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익힌 전략 수립과 실행 경험은 지금도 연구개발 기획, 자원 배분 등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방식보다 중요한 건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걸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고, 후배 제대군인들께도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군에서 쌓은 체계적 사고와 리더십은民間에서도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으며, 저 역시 방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키워 제대군인의 긍정적인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군에서 9년 6개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건축 전공의 공병 장교가 전역 후 또 다른 현장을 찾았다. 이번엔 예술의 온기가 스며든 공간이다. 한정연 예비역 육군 대위는 이제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시민과 예술가를 잇는 ‘건축시설 관리자’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 있다.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책임지는 그의 이야기는 ‘늦은 시작’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전환’의 증거가 된다.



문화예술 공간을 지키는 조용한 일꾼

대구시 중구 수창동, 한때 담배공장이던 붉은 벽돌 건물은 이제 전시와 공연, 창작의 열기로 가득하다. 대구예술발전소, 연간 7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이 복합문화공간에서 한정연 주임은 건물의 뼈대를 지키며 예술이 안전하게 숨쉴 수 있는 터를 만든다. 올해 2월 17일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다. 오랜 기다림과 준비 끝에 만난, 그에게 딱 맞는 무대였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헤매던 그는 지방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군 경력, 나이, 몇 번의 좌절 등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진 채 “지금껏 버텨온 나를 믿어보자”며 면접장에 섰다. 군에서 갈고닦은 경험과 기술을 진솔하게 풀어냈고, 그 진심은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침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하 대구예술발전소 ‘시설 관리자’로 합격의 기쁨을 안았다.

땀으로 쌓은 군 시절, 그리고 전역의 선택

2009년,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ROTC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첫 발걸음은 8사단 공병대대 소대장. 공병의 특성상 야전에서 다리를 놓고 지뢰를 설치하며, 전공인 건축공학을 실전 속에 녹여냈다. 73사단,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까지, 그는 군이라는 거친 땅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렸다.

“군 생활은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현장 일이 재미있었고,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데 자신 있었죠.”

하지만 장기복무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몇 차례 탈락의 쓴맛을 봤고, 결국 전역을 결심했다.

“특별히 두드러진 점이 없는 저로선 실적 싸움에서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역 후의 삶도 내 인생이라 생각하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후회 없이, 그러나 단단한 각오로 그는 군문을 나섰다.



전역 이후, 방황과 도전 사이에서

전역 후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처음엔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학원 문을 두드렸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학원비 지원은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하지만 시험의 벽은 높았고, 그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어린 시절 책과 컴퓨터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그는 3D 모델링에 끌리기 시작했다. 전역 후 오랜만에 맛본 ‘재미있는 공부’는 그에게 불씨가 됐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왕복 6시간 넘는 거리를 오가며 실력을 쌓았지만, 현실은 또 한 번 장벽을 세웠다. 업체는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었고, 병환 중이던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대구에 남아야 했기에 기회가 적었죠. 부업으로 시간을 채우며 지냈지만, 하고 싶은 걸 해본 그 경험이 지금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이후 그는 아파트 관리기사로 9개월을 보냈다. 건축기사와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은 빛을 발했고, 전기 작업, 누수 보수, 안전 점검 등 몸으로 익힌 실무는 그의 튼튼한 자산이 됐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곳에서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다시 걷는 길 위에서

출근하면 1층 전시장 조명부터 옥상 정원까지, 그는 건물 구석구석을 살핀다. 작은 고장은 직접 손보고, 큰 공사는 시공업체와 협력하며 꼼꼼히 기록한다. ‘보이지 않는 완벽함’이 그의 일이고 책임이다.

“군에서 공사 감독하며 다진 판단력과 관리 능력이 지금도 큰 힘이 돼요.”

그에게 공간을 ‘안전하게’, ‘제대로’ 지키는 일은 군과 민간을 잇는 다리이자 그의 정체성이다.

현재 그는 시설관리 자격증과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단순히 일을 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공간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그를 움직인다.

후배 제대군인들에게 그는 조용히 말한다. “나이에 얁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도전하세요. 그 경험이 삶의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요.”

그는 오늘도 뚜벅뚜벅 걷는다. 낯선 길 위에서도 그의 걸음엔 단단한 자신감이 배어 있다. 군에서, 그리고 전역 이후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며 다져온 보폭이다. ↗

한정연 예비역 육군 대위의 성공 법칙

- 1 몸이 재산이다.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라.
- 2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라.
잠은 하루 8시간 이상 꼭 자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기본이 흔들리면 어떤 것도 지
킬 수 없다는 믿음. 체력은 곧 삶의
기반입니다.
- 3 바쁠수록 사람을 챙겨라.
가족과 친구를 소홀히 하지 말고,
늘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 일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
일상을 함께하는 관계가 삶의 버팀
목이 됩니다.

군인에서 또 다른 호국이가 되다

2024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 공모전 장려상

임종현

예비역 육군 중사

서기 1992년 3월 17일 17시

(성장과정 및 학창시절)

화목한 가정 속에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따뜻한 보호 속에 무럭무럭 자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개 살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세상에 대해 배우고 익혀나간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직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군인이었다.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군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장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학업이 너무 어려웠다. 중학교까지는 보통 이하의 성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이후 성적이 좋지 않았다. 수능 성적도 좋지 않아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지방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우리 집 어머니가 가장이셨는데 미화 일을 하셔서 가정 형편도 항상 좋지 않았다. 군대 영장이 나오면 바로 입대를 하려고 했다. 아버지도 방위 출신이셔서 군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군 관련 취업을 알아보는 도중에 우연한 계기로 부사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응시하게 되었다. 필기시험은 문제집을 2권을 사서 정독하고 하루에 4시간씩 공부했고, 2시간씩 체력시험을 준비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가장 간절하게 준비했던 것 같다.

그 결과 나는 시험에 합격했고, 약 4개월간 모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육군 하사로 임관했다. 이때가 서기 2011년 10월 1일 20살이었다.

서기 2011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호국정신의 군시절)

아직 어렸던 나는 초임 하사 때 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업무도 잘 하지 못했었다. 부대 내에서 평가도 물론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항상 성실하게 임무에 매진했고, 주특기 관련 교범도 계속 정독했고 체력관리에도 항상 신경을 썼다. 2년 차부터는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타 전우들보다 느렸던 거 같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른 간부들보다 주특기도 많이 알게 되었고, 부대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중사로 진급하고 멋지게 군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이런 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아버지의 병환이 심해지셔서 오래 사실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 집은 경기도권이었고 나는 당시에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셨다. 자식이라곤 나 혼자였기 때문에 내가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인생이 너무 막막했다. 아버지가 걱정되었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업무는 했지만, 집안 걱정으로 어떻게 일했는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다. 이때 인사과 고참 선배에게 문의하게 되었고, 도움을 받아 재해부사관 승인이 사령부에서 내려와 나는 연고지 근처에 있는 부대로 전출을 하게 되었다. 평일에는 퇴근 후 아버지 병환을 살피고 간호했으나 끝내 운명을 막지 못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지금도 쓰리고 아프다. 이전에 복무연장에 선발되어 긴 시간 복무를 했지만, 장기복무 지원은 하지 않았다. 군 생활이 아쉽고 섭섭했지만, 부모님을 부양하고 곁에 있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서기 2018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렇게 군 생활을 마감하며 새로이 취업준비에 매진했다. 정말 쉽지 않았다. 군대에서 산업체 전형으로 효충사관학을 전문학사로 졸업했고,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무도 3단, ITQ 전산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온라인 학교 경찰학전공에 편입하여 3학년을 마친 상태였으나 다른 취업준비생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처음에는 취업이 쉽게 될 거 같았지만 응시원서 넣고 연락 오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갓 사회초년생이 된 나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았다. 구직 사이트, 제대군인 중기복무 취업연계센터, 시청 취업지원센터의 도움도 받아 취업을 준비했다.

일단 자격면허로 쓸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고,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도 약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기에 좋았다. 성향은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중기복무를 한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이왕이면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보수도 좋고 군 생활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도 더욱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유사 직종으로는 청원경찰과 방호직공무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나와 잘 맞을 것 같았다.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소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청원경찰은 일반경찰과는 달랐는데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보안시설에 배치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최소한의 시설(청사) 경비업무를 하는 직업이다. 과거 공무원 신분에서 현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된다.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이 일반경찰관과 유사한 봉급을 받을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은 공무원 연금,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방호직 공무원은 청원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경비업무 관련하여 경찰관의 권한은 없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 복무의 연장선과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국가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군인으로서의 아쉬움도 한몫을 했다.

사회복지사를 하며 온라인 학교를 졸업한 나는 이 직종을 결국 그만두고 새롭게 꿈을 꾸며 시작했다. 졸업 이후 대학원에 진학했고, 학비가 학기당 5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과 경력을 쌓기 위해 경비원 채용에 지원했다. 게다가 경비원의 경우 만약 청원경찰이나 방호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관련 법령과 기관의 임용기준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었고, 대학원의 경우 야간수업이었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는 직종을 해야 학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던 중 경비원 채용 시험에 합격했고, 회사에 다니면서 야간근무가 아닐 때는 학교 수업에 참여했다(휴무, 주간근무 때). 그러면서 계속 청원경찰 채용시험이 있을 때마다 응시원서를 넣었고, 수십 번 서류에서 낙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번의 최종 면접시험까지 갔었고, 결국 합격하게 되었다. 정말 기뻤다.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다 통과하고 공개채용으로 불었기 때문에 정말 값진 수학이라고 생각했다.

큰 꿈을 갖고 임용 등록하고 즐겁게 회사에 다녔다. 1년이 됐을 때는 조장으로 선발되어 근무했다. 청원경찰은 조원 조장 반장 대장의 직책이 있었는데 각 직책에 맞는 견장을 착용한다. 좀 더 책임감 있게 근무했고 즐겁게 일했다. 별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일을 하며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셨고, 교대근무가 일반근로자보다 휴일 수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근무패턴이 좋지도 않았고, 휴무 때마다 이동해서 어머니도 쟁겨드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이직에도 전해 보기로 했다. 같은 청원경찰 또는 방호직공무원으로 말이다. 우선은 스펙을 좀 더 보강하기로 했다.

청원경찰이 되기 전, 되고 나서도 계속 자기계발은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근무교대하면 도서관도 가고, 업무이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에는 계속 공부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타지에서도 근방 체육관을 다니며 단증도 승단하려고 주기적으로 노력했다. 무도단증, 국가공인 신변보호사, 한국사, 소방자격증 3가지, 무선통신사, 응급처치강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취득하고 보강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시간이 날 때 다듬고 나 자신이 생각하는 청원경찰 및 방호직공무원의 직무를 매뉴얼식으로 만들고 이미지트레이닝도 해보고 그랬다. 하지만, 이 직종도 레드오션(경쟁자가 많아 포화상태가 된 직종)이 되어있었다. 유사한 스펙으로는 경쟁이 힘들었다.

고점의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었기에 부족했지만, 다른 자격증과 스펙을 과감하게 버리고 경비지도사에 을인해서 합격할 자신이 없었다. 절대 평가의 시험으로 현재 기준으로 2~3문제를 틀려야 합격할 수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날의 컨디션과 운만을 믿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좋게 받은 점수가 80점이었기 때문에 턱도 없다고 생각했다. 응급구조사의 경우 휴직을 하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못하고 타지에서 공부하며 마이너스로 생활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못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도 있었다. 결국, 회사를 꾸준히 다니기로 하면서 늦게라도 연고지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군 생활로 취업 관련 수업을 듣던 지인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보안직공무원을 준비해보면 어떻겠냐고 했다. 지인도 그쪽에서 보안직공무원으로 일했는데 규모가 상당히 컸고, 군경력에 대한 인식도 좋았기 때문에 도전해보라는 연락이었다. 이분 덕에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직종인지 상세하게 알 수 있었고, 전국 단위의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연고지로 갈 수 있어 지원하게 되었다. 최종 면접을 보고 떨어질 줄 알았다. 청원경찰 이후 여러 곳에 응시했으나 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잘했을까? 이건 잘못한 것 같고 다음에 다시 준비해야겠지?' 생각했다. 합격자 발표날 조회 결과 최종 합격이었고,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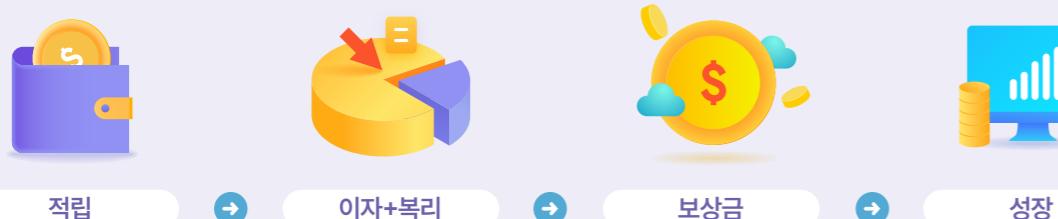
서기 2022년 1월 1일 ~ 현재 (호국이로의 새로운 인생)

새 기관에 합격하고 퇴사 처리 및 인수인계를 모두 정리했다. 공무원증을 새로 발급받고 정말 기뻤다. 지인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작게나마 선물로 보답했다. 진정한 경비, 보안요원이 된 것 같았다. 다들 부러워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니 꿈만 같다. 현재는 근무하며 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기계발을 아직 놓지 않고 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정년퇴직 이후의 새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다. 유사한 업무를 하며 국가에 보탬이 되는 호국이가 된 것 같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군인정신, 간부로서의 생활은 내 인생의 전부였고, 또 다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은 예비역이지만, 항상 정규군처럼 국가수호를 위해 생활하고 생각할 것이고, 언제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려고 한다.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일을 채우는 똑똑한 선택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유통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근로자 3년 이상 장기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제외)

주요 특징

구분	기존 5년형	신규 3년형
최소 가입기간	5년	3년
가입 연령	연령 제한 없음	만 15~34세 (병역 복무 시 연장 가능)
근로자 납입금	월 10만원	
기업 납입금	월 24만원	
적립금	2,040만원 (34만원*60개월)	1,224만원 (34만원*36개월)
만기 환급금 (세전, 변동 가능)	2,190만원	1,277만원

3년형 가입 혜택

기 업 핵심 인력 장기 재직, 중진공 지원사업 평가·선정 우대, 기업 부담금 세제 혜택

근로자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 교육·복지혜택 지원, 만기 수령 시 기업 납입분에 대해
근로소득세 30~90% 감면

내일채움공제 상품 개요

- 최소 가입 금액 **34만원** 기준
- 가입기간 **3~10년**(1년 단위 선택)



효과

퇴사율 감소, 기업·직원 모두 만족

- 장기 재직을 통한 인재 확보로 기업 경쟁력 강화
- 근로자는 안정적인 재직과 함께 모든 마련으로 미래 설계 가능

가입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

방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4개 지역본(지)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문의처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전화: 1588-6259
- 상담: 월~금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현신에 답하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모든 국민에게

글 편집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명이다. 전국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을 중심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춘 통합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최첨단 재활·돌봄까지, 보훈의료복지는 국가유공자와 국민 곁에서 헌신을 이어간다.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의료, 재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약 3,600병상)과 8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을 비롯해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을 운영하며 약 7,100명의 임직원이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의 비전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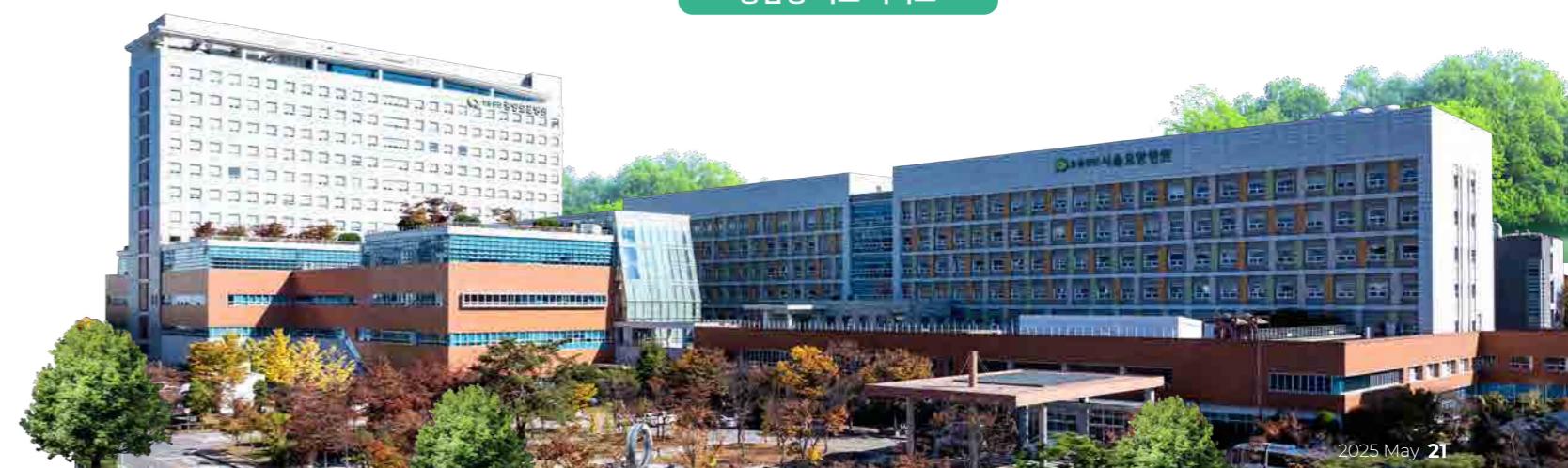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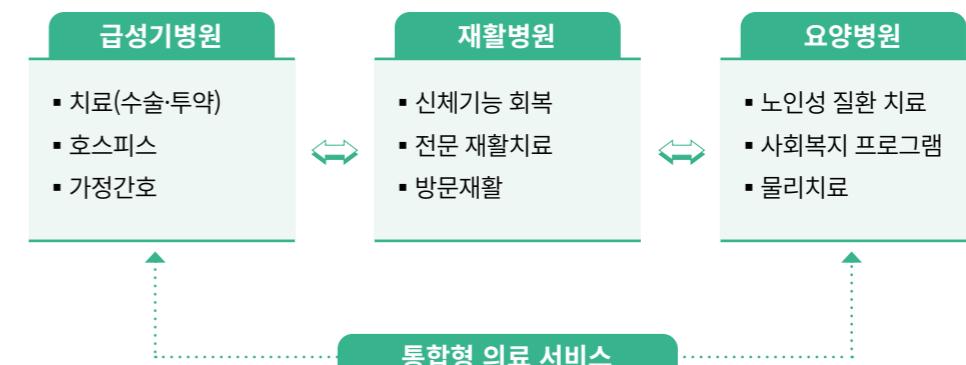
보훈병원별 병상 운영 현황

(2024년 10월 기준)

구분	합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합계	3,687	1,383	659	669	456	383	137
급성기	2,526	800	396	435	415	343	137
재활	462	187	80	114	41	40	-
요양병원	699	396	183	120	-	-	-

고령화된 국가유공자의 수요에 맞춰 급성기 치료, 재활, 요양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급성기 치료 후 바로 재활센터로 이동해 일상 복귀를 준비하거나, 요양 중 상태 악화 시 신속히 보훈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 중앙(서울)·부산·광주 보훈병원은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모두 운영하며, 대구·대전 병원은 재활센터를 갖췄다. 또한 5개 보훈병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통해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돌보고, 중앙보훈병원은 권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돼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교육을 담당한다. 광주보훈병원은 호남권 최대 규모(29병상)의 완화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급성기부터 호스피스, 장례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의료서비스는 보훈병원이 국내 유일하다.

병원 한 곳에서 급성기 진료, 재활, 요양서비스 제공



첨단 기술과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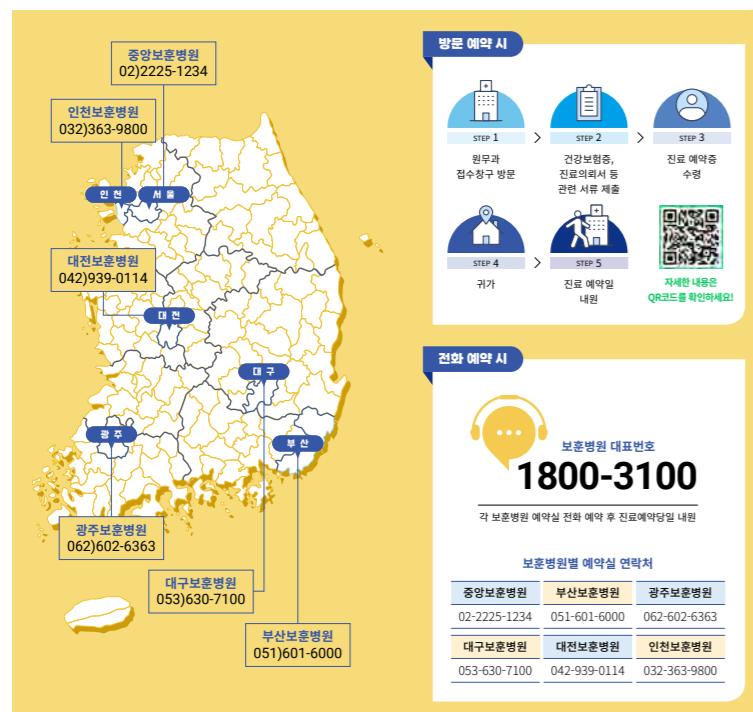
공단은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첨단 의료장비와 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2024년 중앙보훈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치과병원을 개원하고, 대형병원 10여 곳만 보유한 첨단 암 치료장비인 선형가속기(트루빔 에스티엑스)를 도입해 암 치료를 강화했다. 특히 상이군경을 위한 의수·의족 등 보장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자랑한다.

또한,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에 2027년 1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인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은 보훈 특화 기능과 병원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중앙보훈병원의 진료비 자동 결제(하이패스) 시스템도 다른 병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요양과 돌봄, 복지의 새로운 기준

공단은 2006년 3월과 2008년 1월 국가보훈부와 위탁약정을 통해 요양시설 건립·운영을 전담하며, 고령 보훈대상자의 복지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넓은 공간과 단독 건물로 설계됐으며, 미술·원예치료,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등 정서·기능회복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의 방문·공연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에 인지 재활 로봇, 청소 로봇, 자율주행 휠체어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요양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인프라 확충도 활발하다. 수원보훈요양원은 100병상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며, 충청 지역에는 100병상 규모의 충북권 보훈요양원을 2028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의 확장, 제복근무자와 국민까지

보훈의료복지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를 넘어 제복근무자(국가사회기여자)와 일반국민에게도 닿아있다. 공단은 제복근무자(전·현직 군인·경찰·소방·해경·법무 공무원, 전직은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30% 감면하며, 장기(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은 본인 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보훈병원을 통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은 제복근무자는 2023년 4,031명, 2024년 4,46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제도를 홍보해 더 많은 제복근무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분	'24년
소방공무원	1,488명
해양경찰	621명
제대군인(현역군장병 포함)	183명
경찰공무원	1,202명
경찰행정공무원	19명
퇴직경찰	342명
퇴직해양경찰	17명
교정공무원	234명
마음동행센터	345명
법무부	13명
합계	4,464명

감면율 및 감면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세부내용

· 장기복무(10년이상 현역복무) 제대군인

감면율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경찰공무원

세부내용

· 현직 경찰공무원
· 경찰 소속 행정공무원
·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감면율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소방공무원

세부내용

· 현직 소방공무원
·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감면율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현역 군장병, 병역명문가

세부내용

· 현역 군장병
· 병역 명문가 병역 이행자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감면율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해양경찰공무원

세부내용

· 현직 해양 경찰공무원
·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감면율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법무공무원

세부내용

· 현직 법무공무원
·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감면율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군 경력을 활용한 성공의 열쇠, 경비지도사로 열다!

Q

안녕하세요, 현역 부사관입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한 정보는 학원과 서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경비지도사가 현업에서 하는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취득한 자격증을 장롱에만 보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비지도사가 현업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경비지도사는 경찰청 주관의 국가전문자격으로 경비원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교육하는 SECURITY INSTRUCTOR입니다. 도난이나 침입, 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는 경비업무는 군부대의 역할, 군인의 임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 2과목으로 구성된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7년 이상 복무한 군간부가 면제받는 이유입니다.

글 최문섭 작가



경비지도사 시험 가이드

경비지도사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는 국가 전문자격 시험으로,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경비업법 및 직무교육 관련 실무 시험인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특히 7년 이상 복무한 군간부는 1차 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치러진 제26회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는 일반 경비지도사 1차 시험 응시자 4,692명 중 62.3%가 합격하였고, 2차 시험 응시자 6,740명 중 13.9%가 합격하였습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높지만, 군간부 출신이라면 2차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의 핵심 역할과 업무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경비업체 소속으로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원의 지도·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최근에는 온라인 직무교육이 일반화되었지만, 현장 순회 점검과 감독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러한 점검은 경비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실전 활용법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등록된 시설경비업체는 4,321개입니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업계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시설경비업자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지도사는 필수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서비스업의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부대에서의 지휘와 관리 경험은 경비지도사 업무 수행에 있어 큰 강점이 됩니다. 실제로 시설경비업체인 '조은시스템'의 김승남 회장은 군장교 출신으로 1993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군간부 출신의 많은 오너와 선배들이 아웃소싱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의 커리어 확장 전략

경비지도사는 경비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경험 이 쌓일수록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아웃소싱 사업에서 경비, 청소, 시설관리를 모두 담당하는 경비지도사는 업계에서 더욱 환영받습니다.

업무 경험을 통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 평등법 등 다양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고객사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비지도사 업무에서 영업관리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경로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아웃소싱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지도사는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확장할 수 있는 유망한 직업으로 인생 2막, 3막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글쓴이 소개

최문섭 | 9회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의 경력수첩〉 저자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여성 독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근우회

글 편집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를 주장한 단체로, 신간회의 지원을 받아 활동한 대표적인 여성단체는 근우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 지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간회와의 협력으로 탄생한 여성 독립운동 단체

근우회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 속에서 한국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1927년 2월 15일 신간회가 결성되면서 여성들의 조직적인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고, 신간회의 지원을 받아 1927년 5월 27일,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근우회는 남녀평등과 민족해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내세우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근우회는 기존의 남성 중심 독립운동 조직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목표로 하면서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남성 운동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근우회는 신간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본) 41번 문항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2021년 한국사 특강〉

근대 여성 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 학회에서는 차별과 억압에 맞선 근대 여성단체의 활동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강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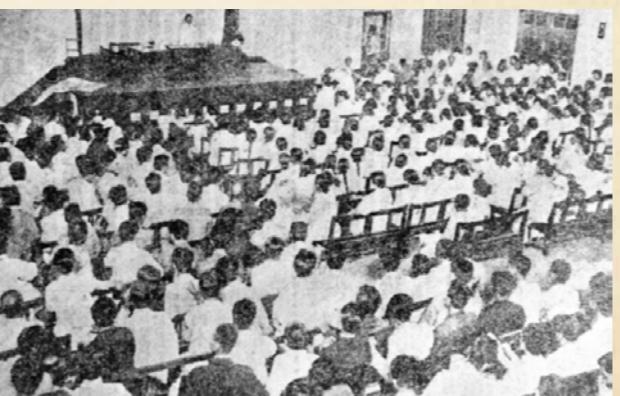
- 1부 찬양회, 여학교 설립을 추진하다
- 2부 (가),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서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다

- 일시: 2021년 ○○월 ○○일 14:00~17:00
- 장소: △△대학교 대강당
- 주최: ◇◇학회

- ① 권업회 ② 근우회 ③ 보안회 ④ 송족회

[정답] ②번

구축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여성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30년까지 모두 64개의 지회가 조직되었고, 1931년 당시 약 6천 명의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1928년 7월 16일 열린 근우회 전국대회 모습 (출처: 독립기념관)

독립을 향한 여성 지도자들의 도전과 활약

근우회의 주요 멤버로는 박차정, 박원희, 정칠성, 허정숙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우회 내부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특히 박차정은 근우회의 핵심 멤버로 선전과 출판 업무를 담당하며 여성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우회는 여성 노동자 지원 활동, 강연회·토론회·강좌 개최, 여성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였고, 일제의 억압에 맞서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근우회의 기관지로 발간된 『근우』는 여성 문제와 독립운동을 다루는 중요한 매체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근우회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직업 교육과 노동권 개선을 주장하며, 여성 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929년 5월 발행한 ‘근우’ 창간호 표지



박차정

경성 여학생시위사건을 이끈 근우회의 영향력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반일학생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1930년 1월 경성 여학생시위사건에 허정숙 등 근우회 간부들이 지원 및 개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허정숙 등 주요 간부가 검거되는 ‘근우회 사건’이 발생하였지요. 노동하는 여성을 조직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1929년 전국대회 이후에는 근우회 조직 내에 ‘노농부’를 설치하였던 것이 상징적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의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파업 등이 발생했을 때 노동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의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1928년 5월 26일과 27일 경성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근우회 전국대회를 종로경찰서가 금지하자 근우회 도쿄지회가 발표한 격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손을 내미는 이들

응급구조사

글 편집실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사진 출처: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와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응급구조사들은 치열한 현장을 누비며 생명의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드라마 속 장면은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응급구조사는 다양한 사고와 재난 현장에서 번뜩이는 판단력과 기술로 인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훈련과 전문성을 갈고닦는 그들의 현실을 살펴보자.



사진 출처: SBS와 NETFLIX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의 주인공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2025)와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2016~2023)에서 응급구조사들의 활약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중증외상센터』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의료진의 처절한 노력을 사실감 있게 그려내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낭만닥터 김사부』 역시 응급실과 외상 센터를 배경으로 응급구조사와 의료진 간의 협력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렬하게 드러났다.



위기를 뚫고 생명을 구하는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는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자연재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환자를 구하고 치료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다. 주로 119구급대, 병원 응급실, 산업체, 항공 및 해양 구조팀 등에서 활동한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 처치하는 그들의 임무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빛난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에 그치지 않는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치를 이어가며,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의료 장비를 관리하고 유지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해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업무는 단순한 기술적 지식뿐 아니라 신속한 판단력, 냉정함, 협력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응급구조사의 무기: 전문성과 지속적인 훈련

- 응급 현장 출동 및 응급 처치 수행
- 환자 이송 중 처치 지속 및 모니터링
- 응급 의료 장비의 유지 관리
- 응급 상황 대비 교육 및 훈련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더욱 강해진다

응급구조사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도시화로 인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직업이다. 특히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응급구조사 수요는 연평균 8%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이들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있다.

2024년부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의 법정 업무범위가 19종으로 확대되었다.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전송, 탯줄 절단 등 보다 전문적인 처치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의료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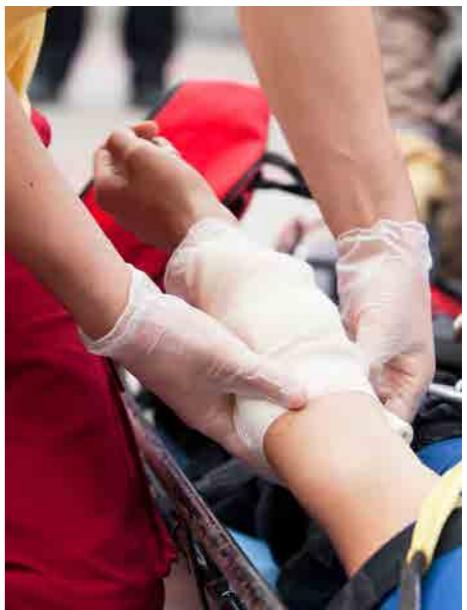
보수교육도 연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었고, 응급구조학과 입학 정원도 자율화되어 인재 양성의 기회가 넓어졌다. 응급구조사는 단순 구조 활동을 넘어 감염병 대응과 환자 이송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필수적인 의료 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도 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길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급의 경우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했거나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 기초 의학, 응급처치학, 보건의료관계 법규 등을 포함하며,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습 과정도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통해 자격신고와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각각의 등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1급 응급구조사는 보다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Check Point
X

관련 학과 이수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 졸업

국가시험 응시

- 보건복지부 주관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 시험 과목
 - 1급: 기초의학, 응급환자관리,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실기시험
 - 2급: 기초응급처치학총론, 기본응급환자관리, 응급의료관련법령, 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장비, 실기시험

자격 취득 및 신고

- 1급 응급구조사: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또는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2급 응급구조사: 관련 교육기관 이수 후 시험 합격
- 합격 후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현장 배치 및 경력 쌓기

- 119구급대, 병원, 산업체, 항공·해양 구조팀 등에서 활동 가능

삶을 구하는 이들의 가치는 영원하다

응급구조사는 단순한 구조 작업을 넘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드라마 속에서 묘사된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실제 현장에서도 빛나며, 지속적인 훈련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대군인들이 군 복무 중 습득한 위기 대처 능력을 활용하여 응급구조사로 진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도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응급구조사에 대해 더 살펴보고 싶다면?

응급구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는 큐넷 직업백과를 참고하세요.

응급구조사의 임금 수준 및 직업 만족도

(자료: 워크넷(2021))



평균 연봉
4,144만 원

직업 만족도
67.8%



응급구조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온다 일자리의 미래, 변화를 준비하라

‘자동차 공장에서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들이 일하고 있다.’ ‘물류센터에는 휴머노이드들이 빈 택배 플라스틱 박스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있다.’ ‘인간과 휴머노이드가 함께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있다.’ 어떤가? 금방이라도 다가올 미래의 모습.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2025년 초 지금의 모습이다. 이미 우리 곁에는 성큼 휴머노이드가 와 있다.

1 휴머노이드가 될까?

조금 흔한스러운 용어부터 정리해 보자. 로봇은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장치’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게는 로봇 청소기에서 크게는 공장의 거대한 로봇팔까지 모두 로봇이라 한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을 닮은 로봇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로봇(형태만 비슷하면 된다)을 말한다. 영화 ‘스타워즈’의 C-3PO를 생각하자. 안드로이드는 두 팔과 다리는 물론 얼굴과 피부 등 인간과 아주 비슷하게 만든 로봇이다. 마블 코믹스의 ‘비전’이나 영화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의 안드로이드를 생각하자. 사이보그는 신체의 일부가 기계로 대체된 것을 말한다. 고전 영화 ‘로보캅’이 좋은 예다. 이 중 휴머노이드의 시대를 성큼 앞당긴 3가지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자.



1 휴머노이드, 인간에게 사과를 건네다

2023년 3월이었다. 휴머노이드 회사 피규어에서 만든 피규어 로봇에 GPT가 탑재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남자는 테이블 위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피규어는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여 사과를 집어 남자에게 건넸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했던 ‘만약에 정말 뛰어난 인공지능에게 몸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이후 휴머노이드 산업은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피규어는 BMW와 손을 잡고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2023년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던 테슬라는 다양한 행사와 영상을 통해 옵티머스가 바텐더 역할을 하거나 날아오는 공을 잡는 등 섬세한 동작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국내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유압식으로 움직이던 옵티머스 로봇을 종료하고 다른 회사들의 휴머노이드처럼 보다 가볍고 소음이 적은 전기식 휴머노이드 ‘뉴 옵티머스’를 공개했다. 뉴 옵티머스도 곧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에 있다.



2 로봇의 첫 GPT 모멘트가 온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이야기다. 해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IT 쇼 - CES 2025에서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다. 키노트에서 그는 ‘로봇의 첫 GPT 모멘트가 온다’라는 말을 하며 엔비디아가 로봇-휴머노이드 시대에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그의 키노트에서 놀라운 점은 2가지였는데 첫째, 로봇을 언급하며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협업을 이야기했다. 앞서 이야기했듯 로봇은 ‘작업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다. 이 점에서 자율주행차 역시 하나의 로봇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휴머노이드를 이야기하며 버튼을 누르자 무대 아래에서 14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라왔다. 현재 가장 앞서있는 휴머노이드들로, 모두 엔비디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신감이었다.

챗 GPT로 인해 빨라진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절대 강자는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미래 먹거리로 ‘휴머노이드’를 이야기했다면 다른 회사들 역시 이 미래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중국이 달린다

세 번째 포인트는 ‘중국’이다. 중국의 기술력은 무섭다. 그리고 놀랍도록 저렴하다. 2025년 1월 춘절 특집방송에서 16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체로 춤을 춤췄다. 2월 말에는 유니트리의 G1 로봇이 쿵푸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며 금기야 4월 19일에는 인간과 로봇이 함께 달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더 놀라운 것은 금액이다. 16,000달러. 약 2천만 원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달리고 있다.

일자리의 미래, 변화를 준비하라

그렇다고 해서 금방 모든 곳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휴머노이드 로봇들에 대한 연구와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줄어드는 인구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함께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반복적인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점점 더 빠르게 기계로 대체될 예정이다.

머리를 써야 하는 고급진 일들은 생성형 AI가 대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휴머노이드가 대신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시작은 요즘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일이다. ☺

글 이임복

현)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인터렉티브북스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MWC 모더레이터,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유튜브 일상 IT 운영자

흐르는 강물처럼, 피어나는 꽃처럼, 기억을 걷는 봄날

전남 곡성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곡성의 봄은 따스하다. 산과 들을 수놓는 꽃들, 잔잔히 흐르는 섬진강의 물결,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이야기가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진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옛이야기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결이 어우러진 곡성. 이곳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풍경 감상을 넘어, 시간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된다.



GOKSEONG. JEOLLANAM-DO



역사를 기리는 굳건한 상징

곡성 경찰승전탑

여행의 첫걸음은 곡성 경찰승전탑으로 향한다. 6·25 전쟁 초기 광주를 북한군에 빼앗기자 경상도 방면으로 후퇴를 권유했으나, 이곳에서 한정일 서장과 곡성경찰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다. 압록리 언덕 위에 우뚝 선 곡성 경찰승전탑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상징이다. 맑은 하늘 아래 당당히 서 있는 탑은 곡성의 역사를 묵묵히 증언한다. 방문객들은 탑 아래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린다. 그곳에서 바라본 곡성의 풍경은 눈부시게 평화로웠다. 그러나 이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❶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151-1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힐링의 공간

심청한옥마을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심청한옥마을이다. 이 마을은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테마로 조성된 전통 한옥 마을로, 기와집과 초가집이 어우러져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다. 마을 곳곳에는 심청전의 이야기를 담은 조형물들이 있어 전통 설화와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한옥에서의 숙박 체험을 통해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마을을 걸으며, 심청이 품었던 깊은 효심과 이곳에 머물렀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의 바람과 발걸음은 이곳에 남아 있는 듯했다.

❷ 전남 곡성군 오곡면 심청로 178

정겨운 장터의 매력을 품으며 쉬어가는 곳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섬진강기차마을로 가는 길,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잠시 여정의 쉼표를 찍는다. 3일과 8일에 곡성 천변 한옥 시장에서 열리는 600년 전통의 5일장은 지역민과 여행객이 어우러지는 생기 넘치는 장터다. 알토란, 통담배상주, 신선한 해산물, 갓 튀긴 고소한 튀김, 오색찬란한 화초 등 먹거리와 특산물이 풍성하며, 상인들의 푸근한 인심은 여행의 따뜻함을 선사한다. 정겨운 흥정과 소소한 덤 속에서 곡성의 온기를 품고 돌아가는 길, 추억 한 조각이 가슴에 남는다.

❸ 전남 곡성군 곡성을 곡성로 856



오월, 장미가 건네는 인사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일정 2025년 5월 16일(금)~25일(일)까지, 총 10일간

시간 09:00~22:00(매표 08:00~20:00), 축제기간만 야간 개장

장소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섬진강기차마을

내용

- ✓ 장미정원 - 약 75,000m² 규모의 정원에 1,004종의 유럽산 우수 장미 품종
- ✓ 행사 및 체험 - 골든로즈포토존, 똑방마켓, 콘서트, 로즈 월즈 파티 등



◀ 사이트 바로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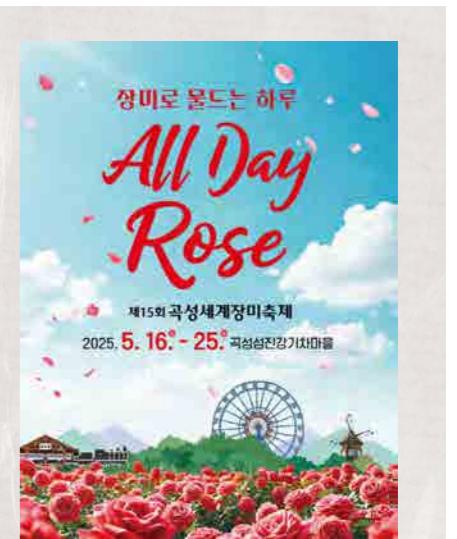
시간 여행을 떠나는 레일 위의 풍경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여행의 하이라이트이자 마무리는 섬진강기차마을이다. 폐선된 전라선 구간과 구 곡성역사를 활용해 조성된 이 기차 테마파크는 옛 정취와 현대적 감성이 조화를 이룬다. 정문에 들어서면 1933년에 세워진 구 곡성역사(등록문화재 제122호)가 방문객을 반긴다. 증기기관차는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가정역 까지 약 10km 구간을 시속 30km로 달리며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왕복 약 90분이 소요되며, 가정역에서 약 30분간 정차하여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동안, 눈앞에 펼쳐지는 강물의 잔잔한 흐름과 산과 들의 고즈넉한 풍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마치 오래전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기차마을 내에는 장미공원, 드림랜드,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특히 장미공원은 매년 5월이면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주 무대로, 1,004종의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장관을 연출한다. ☺

❹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전역 후 새로운 길,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제대군인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곳이 있다.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진심 어린 상담과 맞춤형 지원으로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그 따뜻한 동행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본다.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Q.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08년 3월 대구지방보훈청 구청사(남구 대명동) 인근 별도 건물에서 개소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로 본청과 함께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취업상담팀(6명), 기업협력팀(2명), 교육행정팀(2명) 등 총 10명의 전문 직업상담사와 센터장, 행정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13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취업상담팀의 상담사 한 명은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는 대구 및 경북 지역 약 1만여 명의 제대군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500명이 전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원거리 제대군인을 위한 순회상담(안동, 포항 등)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A.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돋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팀은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전직 지원과 사회 복귀를 돋기 위해 초기 상담을 통해 취업 목표 설정 및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을 제공하여 제대군인이 구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 후에도 직장 및 조직 문화 적응을 돋기 위해 사후 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협력팀은 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제대군인과 기업체 간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팀은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과 멘토-멘티 만남의 행사를 진행하며, 전직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급 등 행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전직지원 교육을 전담하여 군부대를 순회하며 유용한 전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만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A.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중에서 제대군인 멘토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활동하며, 후배 제대군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멘토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맞춤형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는 대구 및 경북 전체 지역의 취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지역 제대군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동, 포항 등에서 정기적인 순회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찾아가는 Job-카페: 당신의 스펙을 보여 주세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거리 거주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고용센터 및 카페 등을 활용해 보다 편안하고 유연한 환경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제대군인들이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Q.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는 제대군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A.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단연 취업지원 및 관련 제도 안내입니다. 제대군인은 민간 사회의 취업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1:1 맞춤 상담을 통해 민간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설정을 돋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제도는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미취업자나 창업 초기 회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한도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 수강이 가능해 직무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순회상담, 워크숍 등이 활발히 운영 중이며,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채용 트렌드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제대군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창업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는 청년, 중장년, 연금대상 제대군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며, 소외되는 회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제대군인의 취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하는 봉사활동 개념의 일자리가 연금대상 제대군인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대구 경북권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채용 정보를 제공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53명의 제대군인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일자리 발굴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며, 제대군인들의 취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올해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올해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는 ‘리스펙 제대군인 취풍당당 – with 한국폴리텍대학’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와의 협업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 및 안동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순회 상담을 운영하며, 원거리 거주 제대군인들에게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순회교육도 강화하여 제대군인 전직 지원 및 보훈제도 안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돋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Q.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는 언제나 제대군인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히 다양한 취업지원기관 및 센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담당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세요. 센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위치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저층부 3층
운영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문의 1666-9279(군인친구)

“제대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양귀진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장



저는 올해 3월 17일자로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장으로 부임한 양귀진입니다. 이전에는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국립신암선열공원 관리소장,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장 등 다양한 보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센터장으로 부임한 후 아직 낯설고 배워야 할 점도 많지만, 그만큼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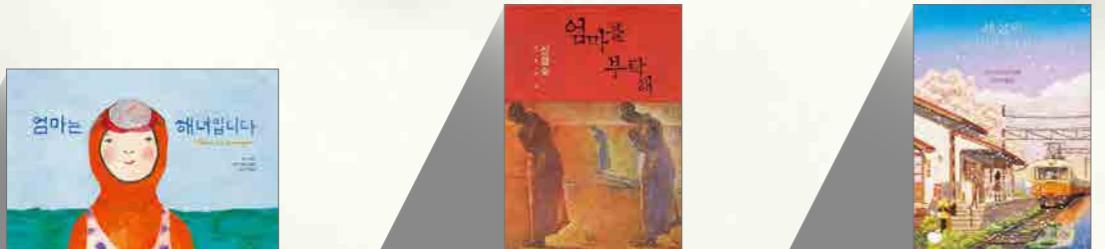
부임 직후 제대군인 멘토 위촉식에 참석하며, 선배 제대군인들이 후배 제대군인을 돋기 위해 자발적으로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가 더욱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긍정적인 기운으로 제대군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I N T E R V I E W

함께라서 더 빛나는 두 글자

가족이 그리운 날, 펼치는 책 한 권



엄마는 해녀입니다

고희영 글/에바 알머슨 그림 | 난다

제주 해녀 삼대의 삶을 풀어낸 가슴 따뜻한 이야기다. 제주 출신인 영화 <물숨>의 감독인 저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만들어낸 이 그림책은 단순한 동화가 아닌 어른을 위한 다큐멘터리다. 에바 알머슨의 따뜻한 그림과 어우러져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 창비

서울의 지하철 역에서 실종된 엄마를 찾으며 가족은 각자의 기억 속 엄마를 되짚는다.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엄마라는 존재의 깊은 사랑과 희생 딸, 아들, 남편, 엄마 각자의 시점으로 구성된 서정적인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면에서도 가장 몰랐던 가족의 의미를 되묻는다.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무라세 다케시 | 모모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판타지 휴먼 드라마 소설이다.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죽은 이와 다시 만날 수 있는 역'에 도착하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별, 후회, 용서를 주제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의 심경에 공감하다 보면 가족 간에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되새기게 만든다.

한 달에 한 가지, 환경을 지키는 선물로 환경 사랑 실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환경을 생각하는 선물로 더욱 의미 있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선물을 포장할 때 일회용 포장지 대신 재사용 가능한 에코백이나 보자기, 종이 포장지를 활용해 보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로는 화학 비료 대신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된 차나 과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진 학용품이나 옷을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선물 카드 대신 디지털 메시지나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것도 환경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지구를 위한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자퀴즈

QUIZ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로,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 (18~19p 커리어 맵 참고)

- ① 내일채움공제
- ② 중소기업공제
- ③ 목돈 마련 제도
- ④ 청년내일공제

※ 5월 20일(화)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페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5년 4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고태호(경기 수원) 김영철(부산 서구)
나용주(강원 화천) 이운주(경기 수원)
황영관(경기 고양)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4월호 정답: ③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

2025년 5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도태철 대한민국 육군 중위

1928. 02. 17.~1951. 11. 17.



제6사단 7연대 소대장으로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정찰로 승리의 길을 열다

1951년 11월 17일 새벽, 도태철 중위(전투당시 계급: 소위)는 연대의 북한강 도하를 위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자 소대원을 이끌고 적진에 침투하였다. 중공군의 기관총 진지를 발견한 그는 좌표를 지도에 표시한 뒤 "이 보고서를 연대에 전달하라"는 말을 남기고 홀로 적진 깊숙이 향했다. 그 순간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도태철 중위의 정찰 정보 덕분에 제7연대는 도하 작전을 성공으로 마치고 전략적 요충지인 949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도태철 육군 중위의 발자취

1951년 9월 1일 육군 소위로 임관 후 제6사단 7연대 소대장 부임
1952년 5월 5일 중위로의 1계급 특진 및 을지무공훈장 추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